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9호

I 고온기 파프리카 품질 높이는 비결은
'뿌리 냉방'



II 수출 고추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III 22년도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 추진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9호

2022. 7. 1(금)

‘22.6.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2.1억\$

부 류 별

신선	가공	수산
  0.7% 745.2백만불	  9.4% 3,759.3백만불	  37.3% 1,707.5백만불
+ 닭고기, 유자, 배, 사과 - 인삼, 김치, 딸기, 파프리카	+ 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 쥬스, 소스류, 물, 리큐르	+ 김, 참치, 명태, 대구, 연어, 고등어 - 굴, 어묵, 해삼, 전갱이

국 가 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927.1백만불(12.7%↑)	물량 조기 확보를 위해 연초 수입량을 늘리면서 재고가 많이 확보되어 전체 증가세 둔화	 인삼(7.9%), 김치(11.9%) 음료(33.7%), 라면(28.3%)  버섯(△23.0%), 닭고기(△15.8%) 장류(△8.7%),
  중국 1,068.1백만불(21.7%↑)	상하이의 점진적 경제활동 회복으로 가공 실적 개선되었으며 수산 증가세 지속	 명태(2,245.8%), 라면(34.9%), 조제분유(6.8%)  인삼(△31.2%), 유자(△7.9%)
  신남방 (ASEAN + 인도) 1,324.1백만불(14.4%↑)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관광 재개, 일상 소비 회복되면서 신선, 가공, 수산 증가세 지속	 참치(44.6%), 음료(21.9%) 닭고기(88.2%), 인삼(36.9%),  딸기(△6.2%), 연초류(△6.5%)
  일본 1,100.0백만불(10.4%↑)	김치, 파프리카 감소세 불구하고 연초류, 과자류 호조로 가공 증가폭 확대	 인삼(12.0%), 연초류(26.3%) 과자류(31.5%), 김(26.1%),  파프리카(△11.6%), 김치(△26.6%) 전갱이(△43.1%), 라면(△8.2%)
  EU + 영국 426.5백만불(29.2%↑)	신선은 김치 호조로 증가세이나 가공 증가폭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세 둔화	 인삼(5.0%), 과실류(12.7%) 과자류(10.8%), 참치(50.4%)  버섯류(△21.1%), 김(△4.1%)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6.30

□ 인삼

- (중국 31.3, △31.2) 주요 수입항 상하이의 경제활동 재개로 감소세 소폭 완화
- (베트남 21.3, 55.7↑)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홍삼정, 인삼음료 등 인기
- (미국 17.3, 7.9↑) 연초 물량 확보로 재고가 많은 상태이며, 현지 창고 부족으로 6월 선적 일정 미뤄지면서 증가세 둔화

115.7백만불 (△4.3%)

주요 수출국 : 중국(31.3백만불, △31.2%), 베트남(21.3, 55.7%), 미국(17.3, 7.9%), 일본(16.5, 12.0%), 대만(10.9, 16.6%), 홍콩(7.7, △26.8%)

□ 김치

- (일본 32.9, △26.6) 국산 김치 가격상승으로 일본 내 가격경쟁력 약화되면서 감소세
- (미국 16.5, 11.9↑) 미국 내 김치 인지도 상승으로 현지 수요 지속되면서 증가세

76.9백만불 (△11.4%)

주요 수출국 : 일본(32.9, △26.6%), 미국(16.5, 11.9%), 홍콩(4.2, 1.3%), 네덜란드(3.8, △20.5%), 영국(3.2, △1.2%), 대만(2.9, △7.4%)

□ 라면

- (중국 91.9, 34.9↑) 사재기 여파 및 현지 대규모 할인행사(618 쇼핑축제) 개최로 증가세
- (미국 47.9, 28.3↑) 제품 다양화 및 현지 온라인 유통채널 확장되면서 증가세
- (일본 30.3, △8.2) 전년 코로나 긴급사태로 인한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383.7백만불(20.0%↑)

주요 수출국 : 중국(91.9, 34.9%), 미국(47.9, 28.3%), 일본(30.3, △8.2%), 대만(14.8, △8.5%), 필리핀(14.8, 22.6%), 태국(14.6, 29.7%)

□ 김

- (미국 103.7, 51.5↑) 건강·웰빙 트렌드에 따른 해조류 관심 증가로 조미김, 스낵김, 김부각 등 다양한 제품 인기
- (일본 67.6, 26.1↑) 일본 내 한류 및 한국식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되며 김밥 김, 조미김 등 수출 증가
- (중국 57.9, △25.6) 상하이 봉쇄 해제되었으나 외부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375.9백만불(13.8%↑)

주요 수출국 : 미국(103.7, 51.5%), 일본(67.6, 26.1%), 중국(57.9, △25.6%), 태국(20.4, 13.6%), 러시아(17.1, △18.1%), 대만(16.3, 18.9%)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농진청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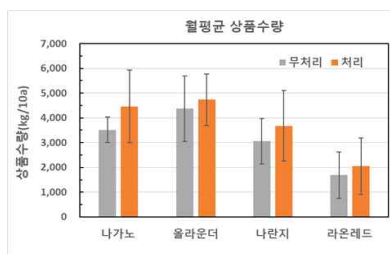


고온기 파프리카 품질 높이는 비결은 '뿌리 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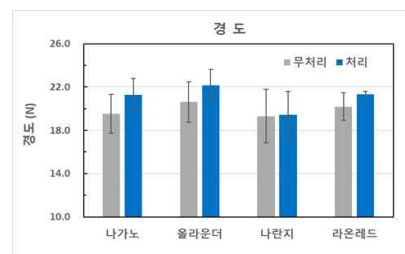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파프리카를 일 년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고온기 파프리카의 '뿌리 냉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는 '라운레드(국산)', '나가노(도입)', '올라운더(도입)', '나란지(도입)' 품종을 고온기 평지 온실에 심고 '뿌리 냉방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분석했다. 뿌리 냉방을 위해 배지 안에 냉수관을 설치한 뒤, 냉난방장치(히트펌프)로 물 온도를 20~21도(°C) 만들어 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24시간 공급했다. 배지는 통기성과 물 빠짐이 좋은 펄라이트를 이용했다. 그 결과, 고온기 맑은 날 뿌리 냉방을 적용한 배지의 온도는 19~23도(°C) 사이로, 뿌리 냉방을 하지 않은 배지 온도(21~28°C)보다 평균 2.8도(°C), 최대 5.7도(°C)가 낮았다. 또한, 뿌리 냉방을 한 파프리카는 뿌리 냉방을 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평균 상품수량이 16.1% 증가했다. 식물 1주(그루)당 열매 무게는 15.1%, 식물 1주(그루)당 열매 수는 16.4% 유의하게 증가했다. 경도(단단함)도 뿌리 냉방을 한 파프리카는 대조구보다 평균 5.7% 유의하게 높았다. 품종별로는 '나가노' 품종이 9.4%, '올라운더' 품종이 7.7% 높았다. 시장성 평가 결과, 뿌리 냉방 기술을 적용한 파프리카는 고랭지에서 생산한 파프리카와 식감, 색깔(색택), 경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실험에 쓰인 냉수 공급관으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해 난방도 할 수 있다. 뿌리 부분 냉난방기 설치 비용, 전기료, 냉방과 난방을 같이 했을 때 증가한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 10아르(a)당 한번(작기) 재배할 때 약 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지 온실 펄라이트 배지 재배 파프리카>



품종 별 상품수량



품종 별 경도

수출 고추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은 한국산 수출 고추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고추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고추(고춧가루 포함)는 대만, 일본 등으로 수출되며,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93톤, 2,164만 2,000달러이다. 이 책은 우리 고추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대만, 일본 2개 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병해충별 사용 가능 농약 목록을 담고 있다. 또한, 각 농약의 수확 전 살포일, 살포 횟수, 국가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수출업체, 농업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22년도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 추진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년도 품목별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인 수출검역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도, 딸기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특히, 신남방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되었다. 올해에도 검역본부는 농식품의 수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 수출업체가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 검역을 지원할 것이라 하였다.



'22년산 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년도 국산 파프리카의 대필리핀 수출을 위해 수출에 참여할 선과장 및 재배농가·수출업체 목록을 필리핀 측에 송부하였다. 검역본부는 고품질 파프리카가 필리핀 등 신남방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 검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양국이 합의한 식물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 협상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